

KOSPI 확률 영역 재진입과 업종 플레이

Technical Analyst 김영일 769-2176 ampm01@daishin.com

단기 하락 추세의 클라이막스를 지난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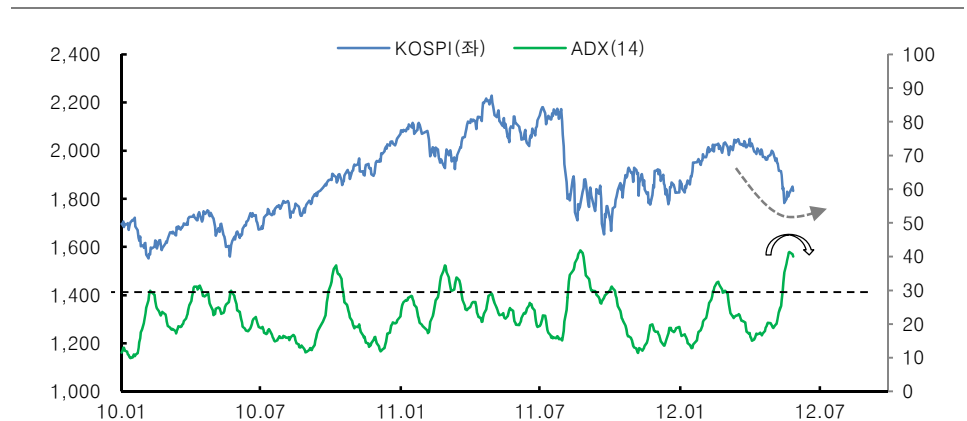
KOSPI 단기 하락 추세는 클라이막스를 지난 것으로 판단되며 당분간(6월 중) 저점(5/18 1,779P)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하단이 제한된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

5월 이후 진행되고 있는 단기 하락 추세가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지난주 KOSPI 상승 과정에서 ADX값의 하락 전환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ADX값이 상승할 경우 진행 중인 추세가 강화되는 것으로, 상승하던 ADX값의 하락 전환할 경우 진행 중인 추세가 약화되는 것으로 판단)

하락 추세 약화 이후 KOSPI 단기 경로는 급격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보다는 상당 기간(1~2개월) 박스권 흐름(1780~1940)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2주전(5/18 종가) 주간 기준으로 추세지표인 MACD(분기평균값-반기평균값)가 0선을 이탈한 상태로 중장기 추세 측면에서 KOSPI의 하락 압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단기 하락 추세 약화와 저점에 대한 신뢰 강화는 업종별 플레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하단이 형성된 만큼 6월에는 5월과 같은 전반적인 업종 하락보다는 가격 메리트 발생업종 중심의 빠른 순환매가 예상된다. 상대적 가격 리스크가 제한적인 화학, 조선, 건설업종의 가격 조정을 이용한 단기 Trading은 유효할 전망이다.

그림 1. 단기 하락 추세 약화 시그널 발생



자료: Fn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하단의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 KOSPI

볼린저밴드(Bollinger Band)는 통계의 정규분포를 토대로 계산되는 지표로 주가가 상단과 하단 범위내에 있을 확률이 95.46%이다.

외부 쇼크 발생시 주가는 밴드 하단을 이탈하기도 한다. 밴드 하단 이탈은 확률치를 벗어난 상태로 주가의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하다. 결국 주가가 밴드안으로 재진입하는 시점이 비이성적 반응이 해소되는 시점이며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시점이 된다.

KOSPI 주간 밴드 하단은 1,820~1,830P이며 이탈 후 재진입한 상태이다. 밴드 기준인 20주 이동평균선이 하락 중으로 밴드 하단 레벨은 낮아질 수 있으나(대략 1750P 수준) KOSPI가 예측 가능 영역에 진입한 만큼 합리적 대응이 가능해진 상태이다.

KOSPI 일간 밴드 하단은 1,750P수준이며 상승 전환이 예상된다. 5월 11일(1,917P) 밴드 하단 이탈 이후 22일(1,828P) 밴드 영역에 재진입한 상태이다.(그림 3)

장단기적으로 KOSPI는 예측이 가능한 확률 영역에 재진입한 상태로 합리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며 일간 밴드 하단인 1,750~1,780P의 저점 신뢰도는 높다는 판단이다.

그림 2. 확률 영역에 재진입 한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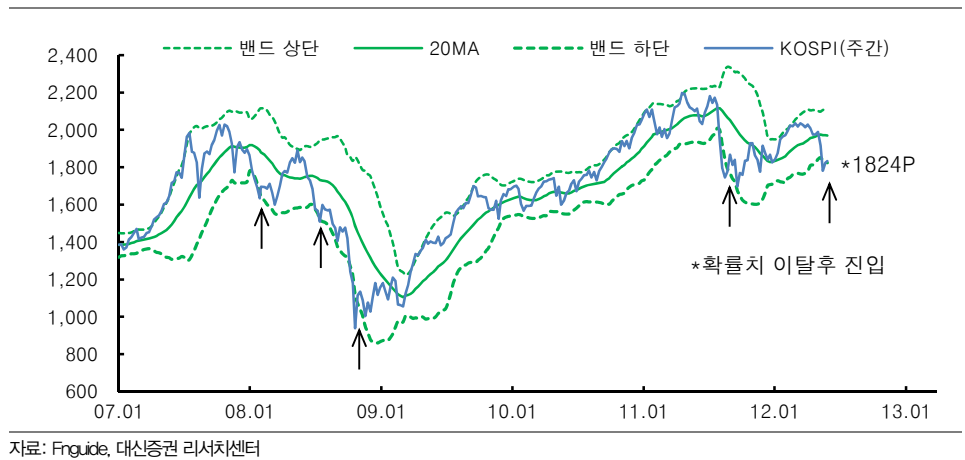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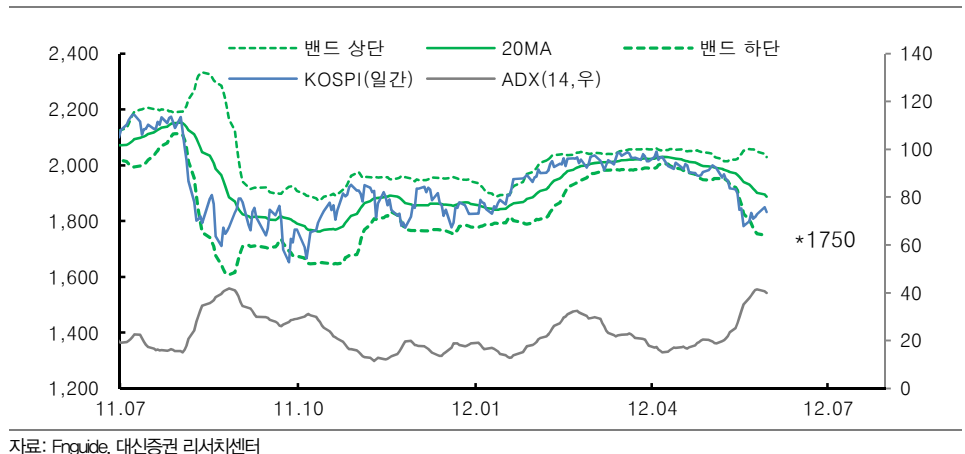


그림 3. 지수 하단의 신뢰도는 높음



추세적 상승은 아직.. 가격 플레이는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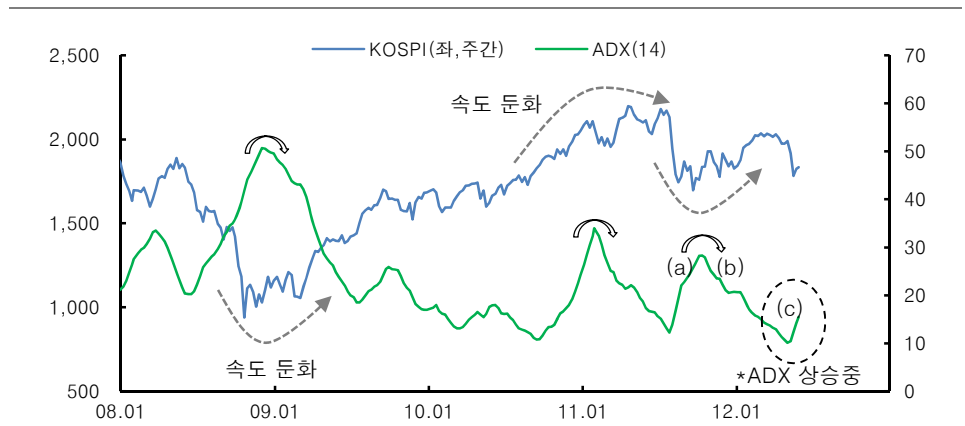
ADX는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ADX값의 상승은 현재 진행 중인 추세의 강화를 의미하며 ADX값의 하락 전환은 현재 진행 중인 추세의 약화를 의미한다.

KOSPI는 확률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영역에 진입한 상태이나 추세적 상승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5월 초 이후 진행되고 있는 하락 추세의 강도는 약화된 상태이나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 둔화 시그널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간 기준 ADX값은 상승 중이나 일간 기준 ADX값은 하락 중이다.(그림 4)(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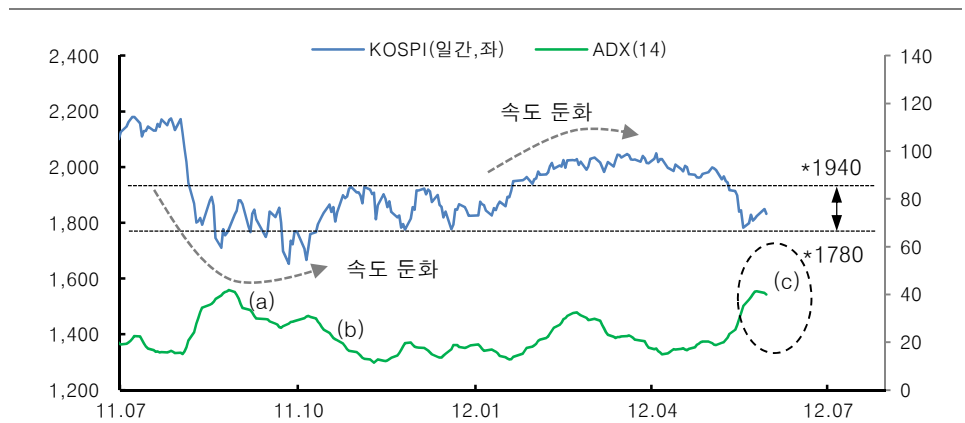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 강도는 강한 상태로 적극적인 대응은 부담스러우나 단기적으로는 반동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다. 지표의 장단기 엇갈림 현상은 2011년 8월(그림 4, a)에도 발생했다. 당시 KOSPI의 저점은 9월(a)에 발생했으나 실질적 상승은 장단기 지표의 동조화가 발생한 10월(b)이었다. 지수 하단이 견고한 만큼 중장기 하락 추세의 약화 시점까지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할 경우 단기 대응이 유효할 것이다.

그림 4. 주가 사이클



자료: Fn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주가 사이클



자료: Fn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하단의 신뢰’와 ‘하락 추세 약화’로 업종 플레이 가능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KOSPI의 기술적 Critical Point는 저항선과 지지선이 위치한 1,780P와 1,940P이며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870P이다.(20MA 하락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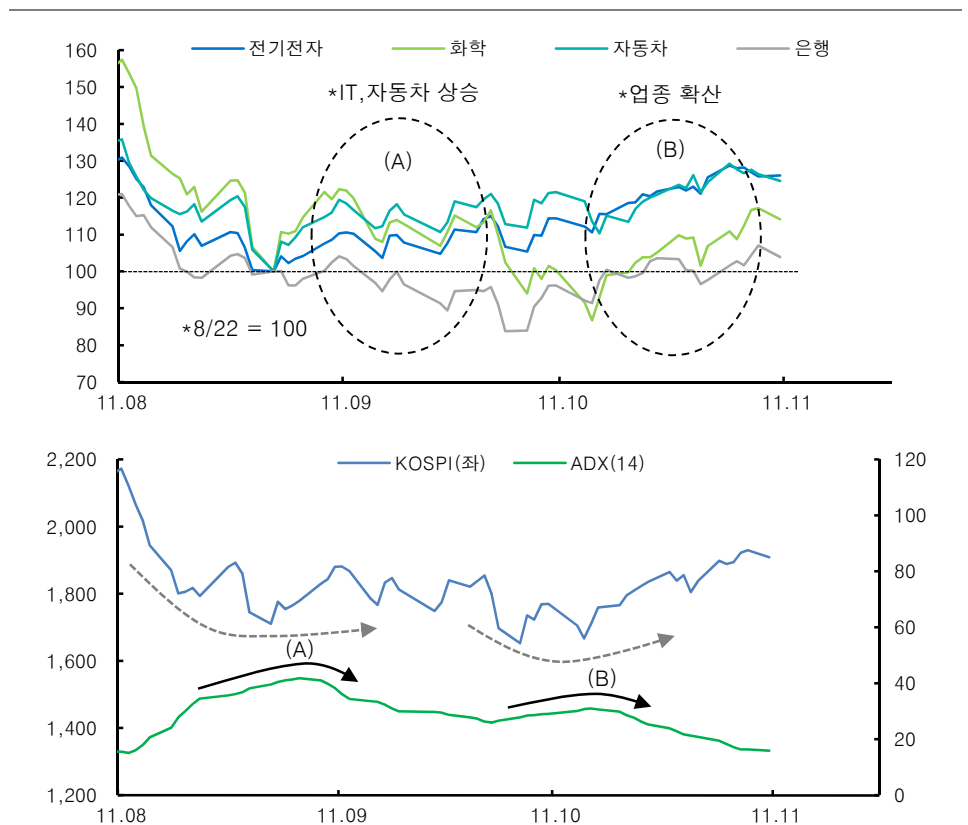
KOSPI는 지난 5월 18일 저점 형성 이후 60P 이상 반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적 저항선인 20일 이동평균선(1870P수준 예상)에 근접할수록 단기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이 커질 것이다.

기술적 저항선에 따른 KOSPI의 하락이 발생한다면 업종별 흐름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1) KOSPI의 확률 영역 재진입 2) 단기 하락 추세 약화 3) 지수 하단에 대한 신뢰 등은 업종 플레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림 6)은 현재 시점과 기술적으로 유사한 패턴(볼린저밴드, ADX)을 보였던 2011년 8월에서 2011년 10월까지 시가총액 상위업종의 흐름을 나타낸 그림이다.

현재 시점은 (A)와 (B)중 (A)와 유사하나 (B)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A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주간 ADX가 상승중이기 때문). (A)의 경우 KOSPI는 1개월간 박스권의 흐름을 보였으나 IT와 자동차는 상승하는 업종 차별화 현상이 발생했다. (B)의 경우 KOSPI는 추세적 상승 흐름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업종 확산 현상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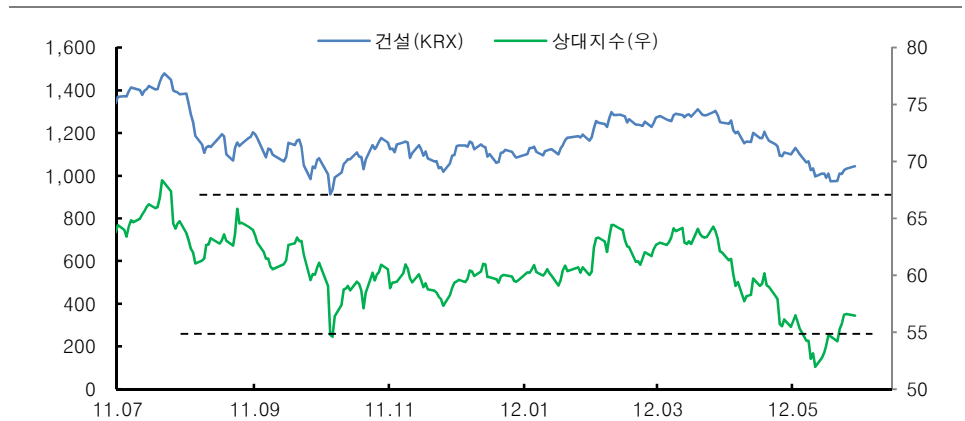
그림 6. 단기 하락 추세 약화로 업종 플레이 가능



자료: Fn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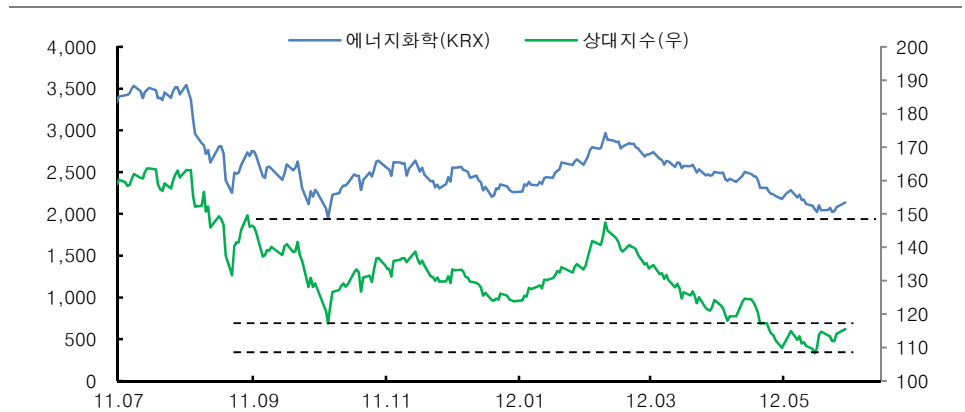
(A)와 (B) 모두 지수 하단에서는 낙폭과대업종의 성과가 좋았으며 업종 플레이가 가능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지수 하단이 제한적이며 확률적 대응이 가능한 만큼 지지선 근접시 낙폭과대업종(화학,건설,조선)의 접근은 유효할 것이다. 다만, 가격메리트가 희석될 경우에는 상대적 리스크가 작은 업종(자동차,IT)을 선택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그림 7. 건설업종과 상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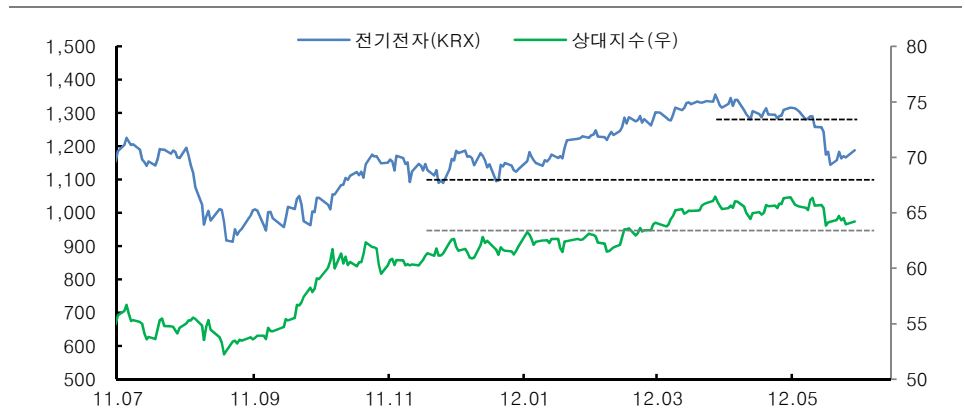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에너지화학업종과 상대지수



자료: Fn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전기전자업종과 상대지수



자료: Fn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